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갑주, 전사의 상징> 공개강연
2015년 10월 28일(수), 오후 2~4시

고대의 갑옷과 투구

이 현 주

정관박물관장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이 강연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강연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강연 5분 전까지 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강연 시작 이후부터는 강당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강연 중에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변경 또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갑주, 전사의 상징> 공개강연
2015년 10월 28일(수), 오후 2~4시

고대의 갑옷과 투구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세화플랜 Tel. 051)868-0241

I. 들어가면서

인류의 역사는 전투와 전쟁의 연속이다. 특히 군사력이 집단의 생존에 절대적인 변수가 되고 군사적인 지도자가 정치체의 리더가 되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란 그 사회를 읽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고학적으로 무기와 무구에 대한 연구는 전쟁의 실상과 관념체계를 파악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II. 갑옷

갑옷은 소재에 따라 목갑, 피갑, 철갑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지판 구성방식에 따라 판갑과 찰갑으로 나뉜다.

가. 가죽갑옷

나무나 가죽으로 된 유기질제 갑옷은 실물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연구자들이 피갑의 존재를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가장 오래된 가죽갑옷은 평양 석암리 219호 출토의 흑칠 가죽 찰갑이다. 장방형 소찰을 가죽으로 엮어 연결가죽의 사이사이를 주칠을 한 형태이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3세기 후반대 부산 노포동 고분군에서는 거치문양과 가죽으로 박음질한 흔적이 남아있는 가죽갑옷이 확인되었는데, 형태는 판갑으로 예상된다. 4세기대가 되어 철제갑옷이 등장한 이후에도 가죽갑옷은 계속 제작되었는데, 목가리개와 허리부분만 철로 만들고 나머지는 가죽으로 제작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찰갑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김해와 부산지역에서 출토하며, 5세기 후엽까지 사용

되었다. 가죽에 옷칠을 하면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어 제작도 용이하고 효율적이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 종장판갑

4세기 초, 경주와 부산에서 처음 출현한 종장판갑은 4세기 후반대에 전성기를 거쳐 5세기 중엽까지 한반도 동남부지역인 신라와 가야에서 주로 제작된 고유의 갑옷양식이다. 종장판갑은 현재까지 복천동고분군에서 가장 많이 출토하여 우리나라 종장판갑의 50% 가까이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김해, 경주, 울산, 포항 등이 있다.

종장판갑은 세로로 긴 장방형 지판을 종으로 세워서 옆판과 이어 나가며 만든다. 연결방법은 가죽을 엮은 혁결기법, 혁철기법, 그리고 리벳에 의한 정결기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가죽으로 연결하다가 점차 못으로 연결한 것이 많아진다. 지판을 못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지판끼리 잘 결합하기는 하나 별도의 개폐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착장이 불편하다. 그래서 양쪽 혹은 한쪽 겨드랑이 철판에 가죽판을 길게 대거나 경첩을 만든다.

또한 판갑 본체 뿐 아니라 등판 위에는 뒷목과 옆목을 보호하는 후경판과 측경판을 함께 제작하였는데, 후경판은 처음에는 종장방형 지판 여러 매를 덧대어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었으나 4세기 후반대에는 1~2매를 옆으로 누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변화한다. 이때 함께 나타나는 것이 측경판으로, 옆목까지 가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반달모양의 철판으로 판갑 어깨부위에 꼽게 된다. 이 시기가 되면 후동부 어깨판도 넓어지고 둥글게 되면서 새모양장식, 고사리문으로 오린 철판을 부착하는가

하면 갑옷 테두리에 동물털을 꼬아 장식성을 배가하게 된다. 이 외에도 판갑을 구성하는 지판이 더욱 세장해지면서 지판수가 증가하고, 소매판의 소멸, 후동부가 높아지는 경향성, 잘록한 허리곡률이 생기는 방향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종장판갑의 변화는 초현기부터 정형화되었고 변화의 방향성이 일정하게 보인다. 하지만 판갑 전체적인 크기, 경갑의 부착방법, 지판재단의 부정형성 등이 다양하여 무덤 부장용으로만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착장자의 기호나 체형에 개별적으로 맞추어가면서 생겨난 다양성임과 동시에 동일한 판갑 제작 기술범형을 보유한 소규모 제작공방의 기술 차이로 생각된다. 종장판갑은 부산 김해지역의 출토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보니, 복천동고분군집단이 일괄 제작하여 주변지역으로 보급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신라는 일찍부터 철제찰갑으로 전환하였고, 신라와 전술이 달랐던 가야 지역에서는 판갑전통이 오래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札甲

형태적으로는 일정한 크기의 소찰을 가죽으로 연결하여 만든 갑옷의 총칭이며, 기능적으로 상하단 유동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과 소찰의 상하단을 고정하여 연결한 방식이 있다. 여밈방식에 따라서는 앞여밈을 하는 동환식과 옆에서 여밈하는 조끼형태의 양당식으로도 구분된다. 현재까지 전체적인 형태가 완벽하게 복원된 예는 없으나 소찰 형태로 볼 때 4세기대에는 비교적 큰 소찰을 사용하였고, 허리부분을 축약하는 정도가 미미한 찰갑을 입었으나, 5세기 초에는 신라에서 처음으로 각종 부속구가 완비된 정형화된 형태의 찰갑을 입었음이 확인되었다. 부속구로 목가리개와 어깨가리개, 팔뚝가리개, 대퇴갑, 정강이 가리개, 경갑

등이 있다. 신갑의 중간부위는 'S'자형으로 휘어져 허리에 맞게 설계되었고, 소찰폭도 좁고 일정하게 규격화되고, 하나의 찰갑에도 신체활동에 맞게 상하단 고정식과 유동식이 적용되었다.

5세기대 이후 한반도 남부지역의 찰갑문화는 토착적인 찰갑문화의 기반 위에 북방민족과 동일한 찰갑문화를 공유하던 고구려를 통해 신라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장기병의 갑주(말과 사람)를 완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4세기대 전통적인 찰갑문화에서는 종장판갑의 요소가 부착되기도 하고, 김해지역에서는 가죽으로 된 찰갑을 선호하는 등 다양성을 보였지만, 경주 쪽샘 C10호를 기점으로 정형적인 札甲문화를 완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Ⅲ. 투구

투구는 전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모자로, 형태와 지판의 종류에 의해 종장판주, 차양주, 층각부주, 소찰주 등이 있다.

가. 종장판주

종장판주는 반구형의 복발에 세로로 긴 지판을 연결하는데 단면형태에 반구형으로 내만하기만 한 것과 S자형으로 만곡하는 것이 있으며, 이를 각각 종장판주와 만곡종장판주로 분류된다. 철제투구가 처음 나타난 시기는 철제판갑보다 한 단계 앞선 4세기 초에 이루어진다. 부산 북천동89호와 울산 중산리 1A100호 출토품이 그것이며, 다음 단계 북천동과 대성동에서 종장판갑과 함께 철제복발을 갖추어 출토하였다.

4세기대 종장판주는 대체로 지판 폭이 넓고 철제복발이 없는 형태도 많이 있으나, 5세기대가 되면 2.5cm내외의 일정한 소찰폭의 만곡종장판주의 비율이 높아진다. 6세기대가 되면 투구에 금동장식이 가해지면서 정치지배자의 투구로서의 면모가 보여지기도 한다.

나. 소찰주

소찰주는 투구를 구성하는 철판의 형태가 상원하방형, 오각형, 변형 오각형 등의 작은 소찰로 구성되며 투구상부에는 복판과 복발, 관모 등이 부착된다. 상원하방형 소찰을 사용한 소찰주는 현재까지 경산 임당에서 확인된 사례가 유일하기는 하나 통일신라 이후 각종 사리장엄구와 탑신에 새겨진 신장상에는 소찰주가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보편적인 투구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각형 소찰에 관모를 부착하는 소찰주는 합천, 고성 등지에서 주로 분포한다.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갑주, 전사의 상징> 공개강연

- 일시: 2015.10.21.~11.18.매주 수, 오후 2~4시(2시간)
- 장소: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참가방법: 현장접수
- 문의: 055-320-6844~5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강 의 주 제	강 사	비고
1	10.21.	가야의 무장과 전쟁	김 두 철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2	10.28.	고대의 갑옷과 투구	이 현 주 정관박물관장	
3	11.4.	고대갑주의 현대적 활용 - 드라마, 영화 속 의상	조 현 진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교수	
4	11.11.	과학으로 복원한 갑옷	김미도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5	11.18	갑옷 전시를 열기까지	김 혁 중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강의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